

청소년의 우정관계 질투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Variables Affecting the Expression of Friendship and Jealousy in Adolescents*

배재현(Jae-Hyun Bae)¹⁾

최보가(Bo-Ga Choi)²⁾

ABSTRACT

This study used the hypothetical path model to investigate individual traits(attachment, reciprocal relationship, and self-esteem), situational evaluation(justification, and intention) and jealousy level in adolescents. Subjects were 853 7th, 9th, 11th grade students in the city of Daegu. Results showed that scores of girls were higher than boys on self-reported and peer-reported jealousy level, attachment, reciprocal relationship, adaptive expression and non-adaptive expression. Scores of boys were higher than girls for self-esteem. justification. Self-reported jealousy level was affected by situation evaluation (justification and intention) and attachment. Peer-reported jealousy level was affected by reciprocal relationship. Jealousy expression modes were affected by self-reported jealousy level and attachment.

Key Words : 우정관계 질투(friendship jealousy), 질투표현(jealousy expression), 상황평가(situational evaluation).

I. 서 론

청소년기에는 모든 것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단짝’ 친구가 필요하고, 이러한 단짝친구관계의 깊이가 깊어지므로(Berndt, 1982) 그 어떤 시기보다도 친구의 영향력이 큰 시기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보다 안정된 우정관계를 확립·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정관계 갈등상황이 불가피하게 야기되고, 이러한 갈등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부정적 정서가 야기되게 된다. 이렇듯 2인의 우정관계에 새로운 제삼자가 개입하여 삼자관계가 성립하게 되면, 기존의 2인 우정관계

* 본 논문은 박사학위논문의 일부임.

¹⁾ 영남대학교 유아교육과 강사

²⁾ 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Bo-Ga Choi,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1370, SanKyuk Dong, Puk-ku, Daegu 702-701, Korea
E-mail : bgchoi@knu.ac.kr

는 제삼자로 인해 위협받거나 상실될지도 모른다는 인식을 하게 되는데, 이때 질투가 생기게 된다(Volling, McElwain, & Miler, 2002). 이러한 질투유발 상황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우정을 다룬 많은 연구들은 2인의 우정관계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을 뿐, 제삼자를 포함하는 보다 폭넓은 관계망으로써 우정을 다룬 연구는 드물다(Lansford & Parker, 1999).

현재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질투에 대한 연구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형제관계(최윤미, 2005),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타인 비교상황(서승정, 1995),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인관계(김교현, 2004), 질투감정 극복을 통한 자기존중감 성취(정이경, 2002) 등의 연구가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우정관계 질투연구(배재현·최보가, 2006)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질투에 대한 연구 성과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질투를 다룬 대부분의 국외연구들은 주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인관계 질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Murphy, Vallacher, Shackelford, Bjorklund, & Younger, 2006; Shackelford, Buss, & Bennett, 2002). 하지만 대학생을 대상으로한 우정관계 질투연구(Salovey & Rodin, 1989)가 이루어지면서 질투를 자극하는 상황이 가족관계, 이성관계 뿐 아니라 또래관계에서도 유발될 수 있음을 밝혔고, 이들 연구는 질투를 확대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많은 연구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그리고 2000년을 넘어서면서 아동후기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우정관계 질투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Biggs & Parker, 2001; Parker, Walker, Low, & Gamm, 2005; Roth, 2002; Walker & Parker, 2001), 가상의 상황이 아닌 실제 경험한 질투에 대한 연구(Lucas, 2004)도 이루어졌으며, 6세 유아를 대상으로 형제관

계에서의 질투가 아닌 또래관계에서의 질투가 사회적 적응과 관계됨을 밝히는 연구(Parker & Walker, 2003)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들은 질투가 유발될 수 있는 상황이 다양함을 밝히고 있는데, 연인관계 질투가 성인기 질투의 전형이고, 부모와의 관계를 놓고 형제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질투나 교사의 애정을 두고 벌어지는 질투가 아동기 질투의 전형이라면, 우정관계 질투는 청소년기 질투의 전형으로 생각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정관계 질투에 대한 관심은 가족관계, 연인관계 질투에 밀려 사실상 간과되어 왔다.

그리고 질투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주로 자기보고식 측정도구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 방법은 실제적인 질투수준을 측정했다고 보기 힘들다. 왜냐하면 질투와 같이 부정적인 정서로 인식되는 정서측정의 경우에,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좀 더 긍정적인 응답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개인에 따라서 질투 유발상황을 우정관계 상실과 같은 극단적인 스트레스상황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면 실제보다 더 낮은 평가를 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배재현·최보가, 2006). 이러한 자기보고식 측정도구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몇몇 연구자들은 또래보고 질투평판척도를 이용한 결과(Parker, Walker, & Gamm, 2002; Walker & Parker, 2001), 두 척도간에 유의미한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떤 우정관계 질투척도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연구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기보고식 측정도구와 또래보고식 질투평판측정도구를 모두 고려한 질투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한편 우정관계 질투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연구자들마다 상반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우정관계에서 유발되는 부정적 정서를 잘 극복하여 우정관계가 더욱 더 좋

아지고, 이렇게 좋아진 우정관계는 이후에 발생하는 부정적 정서에 보다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다(Calkins, 1994). 또한 질투가 유발되었을 때 제삼자가 기존의 우정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해결의 매개체로써 도움을 줄 수 있고, 제삼자를 의식함으로써 기존의 우정관계에 보다 헌신할 수도 있다(Simmons, 2002)는 것이다.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제삼자와 새로운 우정관계를 형성하게 되어 기존의 친구를 무시하거나 외롭게 만들 수 있고(Roth, 2002), 높은 질투성향을 보이는 경우에 우울증이나 반추적인 사고를 더 많이 하게 되며(Lavallee, Parker, & Walker, 2002), 또래거부(Walker & Parker, 2001)나 관계갈등과 폭력(Hansen, 1991) 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질투는 대인간·대인내 적응과 관계되고(Carson & Cupach, 2000), 또래들로부터 질투심이 높다는 평판을 가진 청소년들은 사회적 부적응과 관계된다고 하였다(Walker & Parker, 2001). 그리고 질투유발 빈도와 강도는 시간경과에 따라 비교적 안정적이기 때문에(Parker & Walker, 2003) 질투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질투의 표현에 있어서, 어떤 청소년들은 다른 청소년들에 비해 자주 질투를 경험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질투를 서슴없이 나타낸다. 이렇게 부정적인 정서를 자주 표현하게 되면 공격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지속시켜 건전한 또래관계를 발달시키는데 어려움을 초래하지만(Maccoby, 1996), 부정적인 정서를 무조건 억압하여 표현하지 않게 되면 우울과 관계되므로(Kopper & Epperson, 1996), 질투의 부적절한 표현은 또 다른 문제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강한 질투를 자주 유발하거나 심하게 억압하는 청소년들에게는 질투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과 함께

우정관계의 긍정적인 기능을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비록 모든 청소년들이 때때로 질투를 경험하지만, 동성친구와의 우정관계에 대한 긴장은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에게서 더욱 자주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Roth, 2002). 왜냐하면 여학생들은 우정관계 악화의 주요인으로 타인에 의해 기존의 우정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을 드는 반면, 남학생들은 관심사의 변화를 들고 있어(Ludlow, Hartmann, George, Maianu, Abbott, & Ward-Anderson, 1999), 여학생들이 우정관계 질투에 더욱 민감할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여학생들은 친한 친구수가 소수인데 반해, 남학생들은 보다 큰 집단에 속해있으므로(Lever, 1976), 친한 친구가 제삼자인 친구에게 몰두하게 되는 질투상황에서 자신이 무시된다는 느낌을 더욱 강하게 받게 될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여학생들의 우정관계는 남학생들보다 더욱 깊고, 친밀한 우정관계를 맺을 뿐 아니라(Parker & Asher, 1993) 이러한 성차는 청소년기까지도 지속되므로, 질투상황은 여학생들에게 더욱 파괴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성별이 우정관계 질투의 표현 및 대처와 의미있는 상관이라는 연구결과가 없으므로, 성별을 포함시킨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질투의 개인차를 밝힌 몇몇 연구들은 애착(Buunk, 1980; Roth, 2002)과 우정관계망(Parker, Walker, & Gamm, 2002), 그리고 자아존중감(Bringle & Buunk, 1985; Parker et al., 2005; Walker & Parker, 2001)을 질투와 관련되는 개인변인으로 들고 있다.

유아기의 애착안정성은 인생 전반에 걸쳐 지속되므로(Hazan & Shaver, 1993), 애착안정성이 낮아서 겪는 정서적, 행동적인 어려움은 청소년기까지 지속되게 된다(Lyddon, Bredford, & Nelson, 1993). 그리고 애착과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연구

(Armsden & Greenberg, 1987)에서 볼 때, 애착안정성이 높을수록 우울, 불안,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가 낮아져 정서적 적응 및 학교생활 적응에 많은 이점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최근에 이루어진 질투와 관련된 애착에 대한 연구(Buunk, 1980; Roth, 2002)는 회피형이 가장 낮은 질투수준을 나타내고, 불안양가형은 가장 높은 질투수준을 나타내어, 질투유발시 상황대처에 가장 많은 어려움을 가진다고 하였다. 하지만 안정형과 불안회피형은 질투수준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Roth, 2002), 이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 따라서 이들 연구(Buunk, 1980; Roth, 2002)는 애착의 불안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애착안정성이 질투유발과 대처에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Roth(2002)의 연구는 신뢰도가 매우 낮은 성인용 애착척도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애착을 측정하기에 부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용 애착척도를 이용한 애착안정성과 관련된 질투연구가 요구된다.

다음으로 우정관계망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우정관계 질투는 친구들간에 경험하는 최고의 긴장감중 하나이고(Rawlins, 1992), 자주 표현하게 되면 또래에게 수용되지 못하며(Walter & LaFreniere, 2000), 또래 괴롭힘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Parker & Walker, 2003; Walker & Parker, 2001). 또한 질투, 또래수용, 상호적인 우정관계를 연계한 연구(Walker & Parker, 2001)에서 상호적인 우정관계를 통제 한 후의 또래수용은 또래보고 질투평판과 부적상관이 있었으나, 또래수용을 통제 한 후의 상호적인 우정관계는 또래보고 질투평판과 정적상관이 있었다. 이처럼 상호적인 우정관계와 또래수용은 모두 질투와 관계되지만 서로 상반되므로, 상호적인 우정

관계는 질투로 인한 또래수용의 어려움을 예방할 수 있는 긍정적 기능을 제공할 것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우정관계망이 커질수록 정서적, 도구적, 정보적 지원을 더 많이 제공받을 수도 있지만(Cochran & Brassard, 1979) 우정관계망이 커지게 되면 관계망의 구성원들에 대한 투자 시간이 증가하여 갈등의 가능성 또한 증가한다(Laieiter & Lettner, 1993). 그리고 우정관계망중 상호적인 우정관계망은 일방적인 우정관계망보다 상대를 독점하고 관계를 지속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Laursen & Collins, 1994), 질투가 유발되었을 때 친한 친구가 적다는 것은 친구에 대한 독점성과 소유욕이 커져 질투의 강도도 커지게 되지만 친한 친구가 없거나 학교밖에 많은 외부인 친구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질투 강도나 표현에는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 따라서 상호적인 우정관계망과 질투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질투는 자아존중감을 유지하는데 장애가 되는 분노를 일으키고(Mathes, Adams, & Davies, 1985), 제삼자와 자신을 비교하여 자신의 역량에 대해 불안해하게 하여 자신이 기존의 친구관계에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고 하였다(Roth & Parker, 2001). 그러나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한 질투연구(Lucas, 2004)에서는 자아존중감과 질투간에 유의미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질투와 자아존중감에 부적관계는 있지만 그 정도가 매우 약하다고 밝힌 연구(Bringle & Buunk, 1985)도 있다. 따라서 상이한 연구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아존중감과 질투와의 관련성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많은 정서관련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개인변인중 하나는 성별인데, 이때의 성차는 우정관계 질투에서도 그대로 적용

된다. 즉 여성이 남성보다 우정관계 질투의 경험 및 표현을 더 많이 하고(Parker & Low, 1999; Roth & Parker, 2001; Roth, 2002) 정서강도도 또한 강하다(Fujita, Diener, & Sandvik, 1991). 하지만 질투의 이러한 성차는 앞서 언급한 애착, 우정관계망, 자아존중감과 같은 다른 개인변인들과 관련시켜 이해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여자 청소년들중에서도 애착의 안정성이 높거나 자아존중감이 높을 경우에는 다른 여학생들에 비해 질투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고, 남자 청소년들중에서도 애착의 안정성이 낮거나 자아존중감이 낮을 경우에는 다른 남학생들에 비해 질투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추측은 우정관계망을 관련시켰을 때 또 다른 추측을 가능하게 만들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질투와 관련된 보다 정확한 성차를 밝히기 위해서는 질투와 관련된 개인변인들을 성별에 따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주요 스트레스 사건보다 일상적인 문제들이 누적되면 더욱 큰 장애를 초래한다는 연구(Kanner, Coyne, Schaefer, & Lazarus, 1981)에서 볼 때, 일상적으로 유발되는 질투상황에 대해 부적절한 대처를 하게 되면 이후의 적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질투가 유발되어 표현되는 방식은 적응적 행동과 부적응적 행동을 모두 포함한다(Lavallee, 2005; Roth, 2002). 즉 부적응적인 질투표현을 자주하게 되면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타인의 요구에 친사회적으로 응답하기 어려우며, 또래들의 보복적인 반격을 받게 되고 이러한 반격은 적의적 해석을 강화시켜 다시 공격적인 행동을 일으키는 악순환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배재현·최보가, 2006). 그리고 높은 질투성향을 보이는 청소년들은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 관계적 공격의 질투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oth, 2002). 하지만 스트레스 상황에서 여학생들은 남학생들보다 더욱 더 다양한 전략들을 사용한다는 점(Ptacek, Smith, & Zanas, 1992)에서 볼 때, 질투표현도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질투상황에서 주로 사용하게 되는 질투표현은 개인이 가진 개인적 특성들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정관계 질투가 유발되어 표현되어지는 전체 과정속에서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개인적인 변인들의 인과적인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Novaco(1994)는 질투가 유발되어 표현되어지는 과정에서, 외적상황 자체가 질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어떻게 해석되느냐가 중요한 변수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질투가 인지, 정서, 행동적인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다변인적 경험(Pfeiffer & Wong, 1989)이기 때문에, 질투가 유발되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빠르고 직관적인 인지과정이 선행되고, 이후에 질투의 강도와 반응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Lazarus(1991)의 정서이론을 질투에 적용한 White(1999)의 연구도 질투를 자극하는 상황이 유발되면 삼자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행동적인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때 인지적인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행동적인 반응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때의 인지과정을 상황의 위협성과 관계성 차원에 대한 평가인 일차적 평가(Lazarus & Folkman, 1984)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일차적 평가라는 개념은 자칫하면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더 중요한 것이거나 시간상으로 앞서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고, 용어만 봐서는 각 평가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Lazarus & Folkman, 1984), 좀 더 정확한 뜻을 내포하고 있는 상황평가로서 대처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상황평가와 정서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Averill(1983)은 일련의 사건에 대해 의도적인 것이라고 평가할수록 분노의 강도가 더 높다고 보고하였고, Epps & Kendall(1995)은 상대방의 의도에 대한 평가는 분노각성과 관련됨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Graham, Hudley, & Willams (1992)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격적인 집단과 비공격적인 집단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의 의도된 부정적인 행동이 분노를 유발하며, 분노는 적대적인 행위를 촉발하는지를 연구한 결과, 인지적인 귀인에 의해서 분노의 감정이 발생하며, 이 분노의 감정은 공격적인 혹은 적대적인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또한 Ferguson & Rule(1982)은 우정관계 질투가 유발되어, 상황을 유발한 악의적인 동기로 해석하는 인지적 측면에 따라 행동반응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질투와 같이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때, 이러한 정서에서 벗어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게 된다. 이러한 노력은 나이가 어릴수록 행동적-상황적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데 반해, 나이가 들수록 인지적 전략을 좀 더 많이 사용하게 된다(Harris & Olthof, 1982). 즉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인지적인 전략을 더 많이 선호하게 되고, 여러 심리적인 측면들이 우정관계에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추측을 보다 명확하게 논의하기 위해서는 인지적인 평가를 질투연구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우정관계 질투표현을 연구한 Roth(2002)는 질투상황에서 친한 친구가 제삼자와 새로운 친밀한 관계를 시작하게 되면, 기존의 우정관계에 있는 자신이 무시된다고 느끼면서 매우 큰 상처를 받는 우정관계 불만족상황이 유발된다고 보았고, 이때의 행동들을 크게 7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명확하고 개방적인 태도로 친한 친구나 제삼자에게 접근하는 활동적이고 문제에 초점을 둔 행동반응(Voice), 둘째, 사회적 삼자관계에 있

는 3명을 모두 포함하는 활동적이고 문제에 초점을 둔 행동반응(Include All), 셋째, 상황의 중요성을 경시하거나 부인하면서 우정관계에 대한 지속적인 충성만을 보이는 수동적이고 감정에 초점을 둔 행동반응(Dismiss & Deny), 넷째, 문제와 관련된 직접적인 노력은 하지 않고 주의를 전환하려는 행동을 하거나 우정관계에 대한 지속적인 헌신으로 친구를 독차지하려는 감정에 초점을 둔 행동반응(Distracton), 다섯째, 친한 친구와의 우정관계를 종결하거나 다른 새로운 친한 친구를 찾는 등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적인 행동반응(Exit), 여섯째, 우정관계에 대한 지속적인 헌신은 계속하지만 친한 친구에게 상황의 책임을 지우므로 간접적인 방법으로 친구를 벌하려는 수동적인 공격행동반응(Passive Aggressive), 일곱째, 간접적이고 적대적인 보복의 형태이지만 수동적 공격행동보다는 적극적인 활동으로서 친한 친구나 제삼자에게 직접 헐박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헐담을 하는 것과 같은 관계적 공격행동반응(Relationally Aggressive)이 있다. 그리고 Lavallee(2005)는 Crick & Grotpeter (1995), Lavallee & Parker(2003), Roth(2002)가 사용한 행동반응들을 보다 큰 범주인 비사회적(asocial) 반응, 반사회적(antisocial) 반응, 친사회적(prosocial) 반응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Roth(2002) & Lavallee(2005)의 우정관계 질투표현척도를 이용하여, 질투상황에 대한 보다 적응적인 표현과 부적응적인 표현을 구분하고자 한다.

질투표현과 개인변인, 상황평가변인, 질투수준간의 관련성에 대해 살펴보면, Roth(2002)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질투유발시 문제에 초점을 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여 보다 성숙된 태도로 상황에 대처한다고 하였고, 여대생들의 우정관계 질투를 연구한 Lucas(2004)는 전체의 67.5%

가 ‘친구에게 질투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친구를 꾀했다’와 같이 수동-간접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arker 등(2002)도 질투의 표현이 매우 직접적인 공격형태일 경우 사회적 비난을 받게 되지만, 관계적 공격일 경우에는 결과에 대한 책임이 적고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여성들의 공격형태로 인식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재채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선호된다고 하여, 성별에 따른 질투표현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Roth(2002)는 다른 애착유형에 비해서 회피형은 관계의 위협에 대해 정서적으로 반응하거나 주의하지 않고,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행동도 더 적게 사용하여, 애착의 불안정성이 질투의 부적응적 표현과 관계됨을 밝히고 있다. 또한 Laursen(1993)은 친한 친구간에 발생하는 갈등상황에서는 협상전략을 더 많이 선호하지만 친한 친구가 아닌 경우에 발생하는 갈등상황에서는 경우에는 자기주장을 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등 권력주장하기전략이나 회피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어, 우정관계 질투상황은 친한 친구와 관련되므로 적응적 질투표현을 이끌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Kaplan(1983)은 스트레스가 되는 생활경험은 자신을 평가절하하므로 자아존중감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자아존중감을 고양시키는 사회적 관계나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연쇄적인 경험을 이끌 수 있다고 하였고, Folkman & Lazarus(1980)는 스트레스 유발시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평가하거나 정보가 더 필요하다고 평가할 때에는 문제중심적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였으며, Flett, Blankstein, & Obertinsky(1996)는 동일한 정서를 경험하더라도 개인에 따라 느끼는 정서강도에는 차이가 나는데, 정서강도가 클수록 더욱 더 힘들어하고 이로 인해 문제중심적 대처인 적응적 대처로 나아가기보다

부적응적인 대처에 치중하게 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Roth(2002)는 매우 높은 질투성향을 가진 여성들이 그렇지 못한 여성들에 비해 부적응적인 표현을 더 많이 한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의 우정관계 질투유발과 질투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탐색하고, 이들 변인들의 인과적 관계나 상호공헌도를 규명하여 청소년의 질투관리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개인변인(애착, 상호적 우정관계망, 자아존중감), 상황평가 변인(정당성, 의도성), 질투수준(자기보고, 또래보고) 및 질투표현(적응적 질투표현, 부적응적 질투표현)은 차이가 있을 것인가?

<연구문제 2> 개인변인, 상황평가 변인, 질투수준 및 질투표현 변인들간에는 직간접적인 관계가 있을 것인가?

- 2-1. 개인변인은 질투수준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것인가?
- 2-2. 개인변인은 질투표현 변인들과 직간접적인 관계가 있을 것인가?
- 2-3. 상황평가변인은 질투수준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것인가?
- 2-4. 질투수준은 질투표현 변인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것인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본 연구의 대상자중 남학생은 536명, 여학생은 317명이었고, 중학교 1학년생은 155명, 중학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853)

배경변인	구 분	빈 도(%)	배경변인	구 분	빈 도(%)
성 별	남학생	536(62.8)	학 년	중학교 1학년	255(29.9)
	여학생	317(37.2)		중학교 3학년	275(32.2)
형제자매수 (조사대상자 포함)	1명	80(9.4)	가장 친한 친구와의 교제기간	고등학교 2학년	323(37.9)
	2명	602(70.5)		6개월 이내	19(2.2)
	3명	133(15.6)		6개월-1년 이내	61(7.1)
	4명 이상	38(4.5)		1년-2년 이내	140(16.4)
				2년-3년 이내	152(17.8)
출생순위	외 동 이	80(9.4)	현재 이성친구 유무	3년-4년 이내	178(20.9)
	말 이	381(44.7)		4년 이상	303(35.5)
	둘 째	350(41.0)		있다	174(20.4)
	셋째 이상	42(4.9)		없다	679(79.6)

교 3학년생은 275명, 고등학교 2학년생은 323명이었다. 형제자매수에 있어서는 2명이 가장 많았고, 출생순위로는 맏이와 둘째가 가장 많았다. 가장 친한 친구와의 교제기간은 4년 이상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현재 이성친구가 있는 경우는 전체의 20%인 174명이었다. 그리고 본 조사에 앞서 질문지 문항에 대한 응답자의 이해도,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 질문지 작성상의 문제점과 척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예비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질문지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완성된 질문지를 대구시내 중학교 1학년과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900명을 대상으로 배부 및 회수하였다. 이 중에서 응답이 누락된 질문지를 제외한 총 853부를 최종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2. 측정도구

1) 자기보고식 우정관계 질투수준척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Parker & Low(1999)가

개발한 우정관계 질투척도(Friendship Jealousy Questionnaire : FJQ)를 본 연구자가 수정·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원 척도는 짧은 문장으로 된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예비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택된 11개 문항만을 이용하였다. 본 척도는 질투를 느낄만한 가상의 상황을 제시하고 각 상황에 대해 질투를 느끼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은 자신의 가장 친한 동성친구를 말한다. ‘○○가 보고 싶어하는 콘서트에 있다면, 나는 ○○에게 전화해서 같이 보러가자고 한다. 그런데 ○○은 벌써 콘서트티켓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 반의 다른 친구와 함께 콘서트를 보러가는 중이라고 말한다’, ‘나는 ○○에게 생일선물을 주었는데, 내가 준 선물에는 관심이 없었다. 왜냐하면 ○○은 우리 반의 다른 친구로부터 받은 선물로 기뻐하면서 좋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리커트식 5점척도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질투를 많이 느끼는 것을 의미하며, Cronbach α 계수는 .91이었다.

2) 또래보고식 우정관계 질투수준척도

Walker & Parker(2001), Parker, Walker, & Gamm(2002)이 사용한 또래보고 질투척도(Peer-Reported Jealousy Questionnaire)를 사용하였다. 일반적인 질투와 관련된 행동들으로써 총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행동과 관련성이 높거나 자주 유사한 행동을 표현하는 또래의 수를 무제한으로 지명하게 하는 사회측정적 행동평가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정관계 질투평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애착척도

Armsden & Greenberg(1987)가 개발한 부모 및 또래애착척도(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 IPPA)를 수정한 개정본(IPPA-R)을 사용한 옥정(1998)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상호신뢰 10문항과 의사소통의 질 8문항, 소외 7문항으로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리커트식 5점척도이고, 부정적인 문항들은 역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안정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Cronbach α 계수는 .89였다.

4) 상호적인 우정관계망척도

상호적인 우정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학급내에서 제일 친한 친구를 지명하게 하는 우정지명척도(Friendship nominations measure)를 사용하였다. 개인간 비교를 통하여 상호적인 지명을 한 경우에 1점을 주고, 일방적인 지명을 한 경우는 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상호적인 우정관계를 많이 맺는 것을 의미한다.

5) 자아존중감척도

Rosenberg(1965)가 제작한 SES(Self-Esteem Scale)를 사용한 심승원(2000)의 척도를 이용하였다. 총 10문항이고, 리커트식 5점 척도이며, 부

정적인 문항은 역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Cronbach α 계수는 .84였다.

6) 상황평가척도

Roth(2002)의 질투유발 상황척도를 본 연구자가 수정·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질투가 유발되는 짧은 문장을 읽게 한 뒤, 이러한 상황이 연구대상자 자신에게 일어났다고 상상하게 한다. 이 상황은 자기보고식 우정관계 질투척도의 상황과 동일하고, 각 상황에 대해 얼마나 정당한지를 묻는 정당성의 정도와 고의적인 의도가 있는지를 묻는 의도성의 정도로 구분하여 평가하게 한다. 리커트식 5점척도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상황을 정당하거나 의도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당성의 Cronbach α 계수는 .89였고, 의도성의 Cronbach α 계수는 .87이었다.

7) 질투표현척도

Roth(2002) & Lavallee(2005)가 사용한 우정관계 질투유발시의 행동반응 척도를 본 연구자가 수정·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질투를 느낄만한 가상의 상황을 제시하고 각 상황에 대해 어떠한 행동적인 반응을 할 것인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은 자신의 가장 친한 동성친구이고, ★★은 자신과 친하지는 않지만 같은 반에 있는 친구라고 하였다. ‘항상 점심시간에는 당신과 ○○는 나란히 옆에 앉아서 식사를 하였다. 오늘 당신은 점심시간보다 조금 늦게 학교식당에 도착했고, ○○가 어디있는지 찾아보았다. 그리고 ○○가 있는 테이블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당신이 그 테이블에 도착하기 전에, ○○는 가까이에서 있는 ★★에게 말하였다. ‘★★이야, 안녕! 여기 와서 앉아. 내가 널

위해서 이 자리를 맡아놨어'라고 말하면서, 테이블에서 마지막 남은 자리를 지목하였고, ★★은 ○○옆자리에 와서 앉았다. 그래서 당신은 다른 테이블에 가서 앉아야만 했다.』 본래의 척도는 7개 하위요인의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을 거쳐 적응적 질투표현과 부적응적 질투표현의 2개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적응적 질투표현은 문제에 초점을 두면서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로 질투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를 말하는(예, 나는 친구가 한 행동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를 말한다, 나는 친구에게 화가 난 사실에 대해 말한다, 나와 친구 그리고 ★★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생각해본다)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적응적 질투표현은 감정에 초점을 두므로 현재상황에는 무관심하고 기분전환을 위한 다른 새로운 것을 찾거나 우정관계를 종결하고 새로운 친구를 찾으려 하며, 수동적이거나 관계적인 공격을 하는 시도를 말하는(예, 잘못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체 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생각하지 않기 위해, 화제를 돌리려고 노력한다, 친구몰래 친구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트려서, 아무도 친구를 좋아하지 않게 만든다)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리커트식 5점척도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적응적이거나 부적응적인 표현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적응적 질투표현의 Cronbach α 계수는 .77이었고, 부적응적 질투표현의 Cronbach α 계수는 .79였다.

3. 자료분석 및 통계적 처리

본 연구의 분석은 SPSS for Win12 프로그램과 AMO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 및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척도의 신뢰도를 살펴보

기 위해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변인들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진단과 각 변수간의 전반적인 관계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성별에 따른 변인들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으며, 질투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관계모형을 설정하여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분석

1. 전체 변인들에 대한 성차

<연구문제 1>을 검증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도성을 제외한 모든 변인들에서 성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착, 상호적 우정관계망, 자기보고 질투수준, 또래보고 질투수준, 적응적 질투표현, 부적응적 질투표현은 여학생들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아존중감, 정당성에서는 남학생들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의도성에서는 유의미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2. 개인변인, 상황평가변인, 질투수준 및 질투표현변인간의 관계

1) 남자 청소년 집단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 <연구문제 2>를 검증하기 위해 전체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분석을 <표 3>과 같이 실시하였고, 회귀분석시 분산팽창지수(VIF)검사를 수행한 결과, 모든 변수의 VIF값이 1.4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회귀모형이 적합하여 검증에

<표 2> 성별에 따른 전체 변인들의 차이

배경변인	성별	N	M	SD	t	
개인변인	애착	남자	536	3.44	0.52	-4.40***
		여자	317	3.60	0.53	
	상호적 우정관계망	남자	536	1.46	1.01	-3.20**
		여자	317	1.69	0.99	
	자아존중감	남자	536	3.19	0.69	2.97**
		여자	317	3.04	0.70	
상황평가	정당성	남자	536	2.72	0.96	8.74***
		여자	317	2.16	0.75	
	의도성	남자	536	1.88	0.71	.91
		여자	317	1.84	0.66	
질투수준	자기보고	남자	536	2.15	0.79	-15.19***
		여자	317	3.08	0.96	
	또래보고	남자	536	0.97	1.99	-3.89***
		여자	317	1.59	2.24	
질투표현	적응적	남자	536	1.97	0.74	-9.20***
		여자	317	2.47	0.79	
	부적응적	남자	536	1.53	0.59	-3.52**
		여자	317	1.68	0.64	

* $p < .05$ ** $p < .01$ *** $p < .001$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고, 전체 변인들간의 경로는 <그림 1>과 같다. 첫째, 개인 변인중 애착은 자기보고 질투수준($\beta = .092$)에 정

적인 영향을, 상호적 우정관계망은 또래보고 질투수준에($\beta = .129$)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애착은 적응적 질투표현($\beta = -.114$)에 정적인 영향을, 부적응적 질투표현($\beta =$

<표 3> 남자 청소년 집단의 전체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 애착	1.00								
2. 상호적 우정관계망	.11**	1.00							
3. 자아존중감	.47**	.02	1.00						
4. 정당성	.12**	.05	.04	1.00					
5. 의도성	-.01	-.05	-.08	.12**	1.00				
6. 자기보고 질투수준	.06	-.02	.04	-.35**	.33**	1.00			
7. 또래보고 질투수준	-.09*	.13**	-.03	-.06	.01	.01	1.00		
8. 적응적 질투표현	.13**	-.01	.05	-.34**	.05	.34**	-.02	1.00	
9. 부적응적 질투표현	-.12**	.01	-.05	-.18**	.04	.18**	.08	.34**	1.00
평균	3.44	1.46	3.19	2.72	1.88	2.15	.97	1.97	1.53
표준편차	.52	1.01	.69	.96	.71	.79	1.99	.74	.59

* $p < .05$ ** $p < .01$

〈표 4〉 남자 청소년 집단의 경로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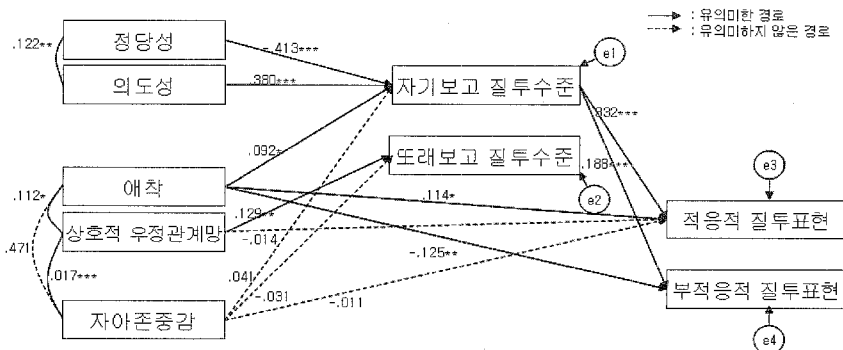
경로		B	β	t
상호적	애착 → 자기보고	.141	.092	2.185*
	우정관계망 → 또래보고	.255	.129	3.021**
	자아존중감 → 또래보고	-.088	-.031	-0.717
	자아존중감 → 자기보고	.047	.041	0.970
상호적	애착 → 적응적 질투표현	.164	.114	2.462*
	애착 → 부적응적 질투표현	-.142	-.125	-2.967**
	우정관계망 → 적응적 질투표현	-.010	-.014	-0.342
	자아존중감 → 적응적 질투표현	-.012	-.011	-0.234
정당성	→ 자기보고	-.341	-.413	-11.061***
	의도성 → 자기보고	.423	.380	10.224***
자기보고	→ 적응적 질투표현	.310	.332	8.185***
	→ 부적응적 질투표현	.138	.188	4.448***

* $p < .05$ ** $p < .01$ *** $p < .001$

-.125)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상황평가 변인중, 정당성은 자기보고 질투수준($\beta = -.413$)에 부적인 영향을, 의도성은 자기보고 질투수준($\beta = .380$)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자기보고 질투수준은 적응적 질투표현($\beta = .332$)과 부적응적 질투표현($\beta = .188$)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안된 측정모델의 부합도를 추정하는 지표들이 <표 5>에 제시하였다. GFI와 AGFI는 .90 이상이면 좋은 모형(이순목, 1990)인데, 본 연구의 GFI는 .96으로 적합하였고, AGFI

는 .86이므로 적합도가 조금 낮았다. 그리고 RMR는 .05 이하일 경우 좋은 모형(이순목, 1990)인데, 본 연구는 .04이므로 적합하였다. RMSEA는 .08 이하이면 좋은 모형이고, .10 이하이면 보통의 모형(이순목, 1990)인데, 본 연구는 .10이므로 보통의 적합도를 나타냈다. NFI와 CFI는 .90 이상이어야 적합(이순목, 1990)한데, 본 연구는 NFI가 .80이었고, CFI는 .82이므로 모형의 적합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남자 청소년집단의 가설적 모형 부합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남자 청소년 집단의 변인들간 경로

<표 5> 측정 경로모형에 대한 부합도 지수

(남자 청소년 N=536)

통계량	χ^2	df	CMIN/DF	p	GFI	AGFI	NFI	CFI	RMR	RMSEA
지수	109.25	14	7.804	.000	.96	.86	.80	.82	.04	.10

<표 6> 남자 청소년 집단의 변인들간 경로효과 결과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애착 → 자기보고	.092	-	.092
상호적 우정관계망 → 또래보고	.129	-	.129
애착 → 적응적 질투표현	.114	.030	.144
애착 → 부적응적 질투표현	-.125	.017	-.108
정당성 → 자기보고	-.413	-	-.413
의도성 → 자기보고	.380	-	.380
자기보고 → 적응적 질투표현	.332	-	.332
자기보고 → 부적응적 질투표현	.188	-	.188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애착은 자기보고 질투수준을 매개로 하여 적응적 질투표현과 부적응적 질투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여자 청소년 집단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
우선 각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분석을 <표 7>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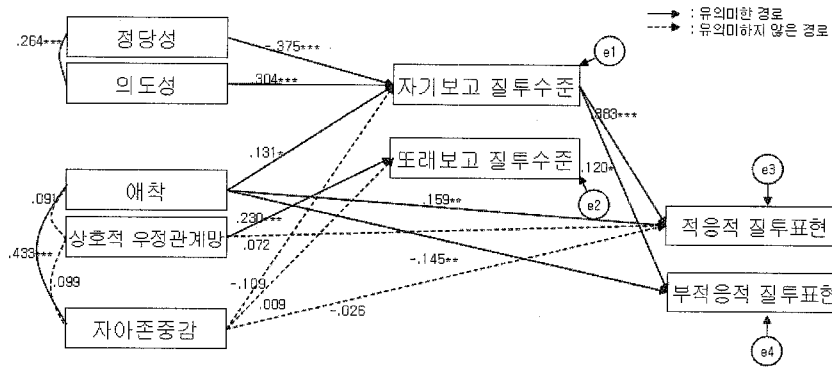
같이 실시하였고, 다중공선성 진단을 위한 VIF값은 모든 변인들간에 1.3 이하로 분포하고 있어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같고, 전체 변인들간의 경로는 <그림 2>와 같다. 첫째, 개인변인중 애착은 자기보고 질투수준($\beta=.131$)에 정적인 영향을, 상호적 우정관계망은 또래보

<표 7> 여자 청소년 집단의 전체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 애착	1.00								
2. 상호적 우정관계망	.09	1.00							
3. 자아존중감	.43**	.10	1.00						
4. 정당성	-.04	-.02	-.004	1.00					
5. 의도성	-.01	.01	-.14*	.26**	1.00				
6. 자기보고 질투수준	.10	-.04	-.09	-.30**	.22**	1.00			
7. 또래보고 질투수준	.11*	.23**	.03	-.16**	.07	.18**	1.00		
8. 적응적 질투표현	.19**	.07	.02	-.21**	.10	.40**	.09	1.00	
9. 부적응적 질투표현	-.13*	-.01	-.11	-.10	.12*	.11	-.08	.25**	1.00
평균	3.60	1.69	3.04	2.16	1.84	3.08	1.54	2.47	1.68
표준편차	.53	.99	.70	.75	.66	.96	2.24	.79	.64

* $p<.05$ ** $p<.01$



〈그림 2〉 여자 청소년 집단의 변인들간 경로

고 질투수준($\beta=.230$)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애착은 적응적 질투표현($\beta=.159$)에는 정적인 영향을, 부적응적 질투표현($\beta=-.145$)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상황평가 변인중, 정당성은 자기보고 질투수준($\beta=-.375$)에 부적인 영향을, 의도성은 자기보고 질투수준($\beta=.304$)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자기보고 질투수준은 적응적 질투표현($\beta=.383$)과 부적응적 질투표현($\beta=.120$)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안된 측정모델의 부합도를 추정하는 지표들이 <표 9>에 제시하였다. GFI는 .96으로 적합하였고, AGFI는 .88로 적합도가 조금 낮았으며, RMR은 .08로 낮았고, RMSEA는 .10으로 보통의 적합도를 나타냈다. NFI와 CFI는 .83과 .86으로 낮은 적합도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여자 청소년 집단의 가설적 모형 부합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애착은 자기보

〈표 8〉 여자 청소년 집단의 경로분석 결과

경로		B	β	t
애착 상호적 우정관계망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 자기보고	.235	.131	2.334*
	→ 또래보고	.518	.230	4.176***
	→ 또래보고	.030	.009	0.171
	→ 자기보고	-.149	-.109	-1.932
애착 애착 상호적 우정관계망 자아존중감	→ 적응적 질투표현	.235	.159	2.798**
	→ 부적응적 질투표현	-.174	-.145	-2.610**
	→ 적응적 질투표현	.057	.072	1.408
	→ 적응적 질투표현	-.029	-.026	-0.454
정당성 의도성	→ 자기보고	-.477	-.375	-7.173***
	→ 자기보고	.443	.304	5.761***
자기보고 자기보고	→ 적응적 질투표현	.314	.383	7.440***
	→ 부적응적 질투표현	.080	.120	2.161*

* $p<.05$ ** $p<.01$ *** $p<.001$

〈표 9〉 측정 경로모형에 대한 부합도 지수 (여자 청소년 N=317)

통계량	χ^2	df	p	CMIN/DF	GFI	AGFI	NFI	CFI	RMR	RMSEA
지수	53.983	14	.000	3.856	.96	.88	.83	.86	.08	.095

〈표 10〉 여자 청소년 집단의 변인들간 경로효과 결과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상호적 우정관계망 → 애착	.131	-	.131
상호적 우정관계망 → 또래보고	.230	-	.230
애착 → 적응적 질투표현	.156	.050	.209
애착 → 부적응적 질투표현	-.145	.037	-.129
정당성 → 자기보고	-.375	-	-.375
의도성 → 자기보고	.304	-	.304
자기보고 → 적응적 질투표현	.383	-	.383
자기보고 → 부적응적 질투표현	.120	-	.120

고 질투수준을 매개로 하여 적응적 질투표현과 부적응적 질투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1. 전체변인들의 성별에 따른 차이

첫째,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애착안정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에 관계없이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친구에 대해 더 높은 애착을 나타낸다는 Paterson, Field, & Pryor(1994)의 연구결과,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또래애착의 질이 높다는 Raja, McGee, & Stanton(1992)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그리고 옥정(1998)의 연구도 여학생들이 또래 애착안정성이 더 높은 것으로 밝혀 이를 지지한다. 이러한 성차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친구관계 형성시 집단

으로 사귀기보다는 단짝친구를 선호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애착의 성차보다는 부모 및 또래 애착관계의 상대적 중요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우정관계에서의 애착에 대한 성차에는 일관성 있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연구(장휘숙, 1997)도 있다.

둘째,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상호적 우정관계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더 많은 친구 수를 가지고 있다는 신재은(2000)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그리고 여학생들의 친구관계는 남학생들의 친구관계보다 더욱 독점적, 배타적 이원관계를 맺으며(Rubin, 1982), 남학생들은 자신의 친구관계에 다른 또래를 쉽게 포함시키고, 친한 친구와 친하지 않은 친구 모두에게 친사회적 양상을 보이는 경향이 더 크기(Berndt, 1982)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친구관계에서 상호성을 구분할 때, 기준을 매우 엄격하게 할 경우 남학생들의 친구 수는 줄어드는데 반해 여학생들은 그

렇지 않은데, 그 이유는 여학생들은 남학생들보다 더욱 많은 수의 상호적인 친구관계를 맺으며 보다 더 친밀하고, 갈등해결도 더 잘하며, 인정과 돌봄을 더 많이 주고(Parker & Asher, 1993) 동성친구와의 상호작용이 빈번할 뿐 아니라 상호작용의 내용에서도 자기노출과 정서적 지원이 더 높기 때문이다(Burhmaster & Carbery, 1992) 볼 수 있다.

셋째,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자아존중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고등학생의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더 높은 자아존중감을 지닌다는 손미리(199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사춘기에 여성이 남성보다 외모에 대한 불만이 더 많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자아존중감이 낮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Richards, Boxer, Peterson, & Albrecht, 1990)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에 진학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현주, 1990; Blyth, Simons, & C-Ford, 1983)에서 이 시기동안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에 일시적인 저하현상이 나타나는데, 특히 여학생의 경우에 더욱 현저한 자아존중감의 저하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자아존중감의 저하현상은 호르몬 변화와 생리적 변화에 기인하므로(조희숙, 1994),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면서 자아존중감의 차이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러한 추측은 자칫 고등학생이 되면 자아존중감의 성차가 없어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초, 중, 고, 대학생을 모두 포함하는 자아존중감의 연구가 이루어져, 연령과 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정당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정적 정서인 분노가 유발되는 상황에서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정당성을 더 높게 지각한다는 채유경(2001)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하지만 분노가 유발되는 상황에서 의도성의 성차를 밝힌 Quigley & Tedeschi(1996)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친구관계에 있어서 여학생들은 남학생들보다 타인에게 온정을 베풀고 감정이입, 격려와 같은 관계지향적인 측면을 강조하는데 반해, 남학생들은 성취지향적인 면을 강조하기 때문에(Maccoby, 1990), 관계에 해를 주는 질투 유발상황은 여학생들에게 정당한 상황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반면, 남학생들은 친한 친구나 제삼자의 불가피한 상황으로 지각하면서 보다 정당한 상황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생각된다.

다섯째,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자기보고 질투수준과 또래보고 질투수준 모두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보고 질투수준에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더 많은 질투를 나타낸다는 Biggs & Parker(2001), Roth & Parker(2001), Roth(200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또래보고 질투수준에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더 많은 질투평판을 나타낸다는 Walker & Parker(2001), Parker, Walker, & Gamm(2002)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남학생들이 질투를 표현할 경우 계집애처럼 보인다는 놀림을 당하고 낙인이 찍힐 수 있기 때문에, 외현적인 질투표현을 두려워한다고 Fagot(1977)의 연구도 이를 지지한다. 게다가 Parker 등(2003)은 질투가 우울증상과 같은 내현적인 문제뿐 아니라 공격성과 같은 외현적인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으므로, 부모들은 아들보다 딸이 질투표현을 할 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성차는 부모와 또래의 사회화 과정에서 긍정적인 정서에 대한 표현은 남녀 상관없이 비교적 모두에게 허용적인데 반해, 부정적인 정서에 대한 표현은 딸보다는 아들들에게 더 많은 정서조절의

규제를 강요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적응적 질투표현과 부적응적 질투표현 모두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질투유발시 문제에 초점을 둔 질투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여 보다 성숙된 태도로 상황에 대처한다는 Roth(2002)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그리고 여성들은 부정적인 정서인 슬픔을 더 많이 표현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더욱 이해해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정서적인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부정적 정서표현도 또한 많이 사용하는데 반면, 남성들은 슬픔이나 고통을 유발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게 되면 오히려 다른 사람으로부터 놀림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하기 때문에(Zeman & Garber, 1996) 이러한 성차가 나왔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스트레스적 사건 경험에 대해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더욱 많은 전략들을 사용하기 때문에(Ptacek et al., 1992), 질투가 유발되는 상황에서도 적응적 질투표현 뿐 아니라 부적응적 질투표현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여성이 남성보다 동성의 우정관계에서 친구에 대한 기대가 더 크기 때문에(Clark & Ayers, 1993) 우정관계에서 유발되는 질투상황은 친구에 대한 보다 큰 실망감을 갖게 만들어, 친한 친구 혹은 제삼자에 대한 부적응적인 질투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차이만으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질투성향에 더욱 취약한 집단으로 구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추후에는 질투성향이 높은 집단을 연구대상으로 한 질투연구가 이루어져, 질투성향을 높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변인들과 질투로 인한 대처과정에 이익, 불이익이 되는 변인들을 찾아냄으로써, 이들을 돕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계획하는데 도움

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2. 개인변인, 상황평가변인, 질투수준 및 질투표현변인간의 관계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에 제시된 12개의 경로를 검증한 결과, 남녀 집단 모두 8개의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개인변인중 애착과 질투수준을 살펴보면, 남녀 집단 모두에서 애착은 자기보고 질투수준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애착안정성이 높을수록 우정관계에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끼면서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에 대한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스트레스 사건과 직면했을 때 부정적인 정서적 각성을 덜 보인다는 Bretherton(1985)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불안정 애착의 경우에, 불안양가형은 높은 강도의 질투수준을 보이지만(Bunk, 1980) 회피형은 낮은 강도의 질투수준을 보인다는 점(Roth, 2002)에서 볼 때, 애착안정성이 낮은 회피형들도 낮은 강도의 질투수준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추후에는 애착안정성의 하위요인에 따른 질투수준의 차이를 밝힌다면, 질투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구체적인 측면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갈등은 부정적인 측면만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갈등의 적절한 처리방식에 의해 사회적 기술이 촉진될 수 있다는 점(김지현, 2002)에서 볼 때, 친구관계에서 갈등은 필연적인 것이고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다루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적응상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게 된다(이희경, 1989). 따라서 애착은 질투로 인한 정서적인 괴로움의 정도인 질투수준의 완충적인 역할

은 하지 않았지만,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질투표현인 적응적 질투표현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궁극적으로 애착안정성은 청소년의 적응에 도움이 됨을 시사한다.

둘째, 개인변인중 상호적 우정관계망과 질투수준을 살펴보면, 남녀 집단 모두에서 상호적 우정관계망은 또래보고 질투수준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또래수용을 통제 한 후의 상호적인 우정관계망이 또래보고 질투수준과 정적상관이 있다는 Walker & Parker(2001)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호적인 우정관계일때 상대를 독점하고 관계를 지속하고자 하는 욕구는 일방적인 우정관계보다 강하기 때문에(Laursen & Collins, 1994) 상호적인 우정관계망에 있는 사람들은 질투유발상황에서 친한 친구가 새로운 친구에게 몰두하여 자신이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더욱 강하게 받게 되어, 친구관계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 커지게 만들어 보다 강한 질투를 느끼게 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한편 또래 및 친구관계 갈등에 대한 연구(Hartup, French, Laursen, Johnston, & Ogawa, 1993)에서 상호적인 친구관계가 단순히 아는 사이보다 갈등의 발생빈도가 적지 않고, 보다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일치 뿐 아니라 불일치도 더 많이 경험하며, 이러한 갈등을 경험한 이후에도 우정관계는 지속되는 것으로 밝히고 있는데(Laursen & Collins, 1994), 이는 상호적인 우정관계망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질투와 같은 다양한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됨을 시사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상호적인 우정관계망은 일방적인 우정관계망보다 교제의 즐거움, 도움, 친밀감, 신뢰, 인정, 정서적 안정과 같은 긍정적인 기능을 더 많이 제공해주기 때문에(오현미, 1999), 평소의 우정관계에서 이러한 긍정적인 기능들이 어느 정도 충족되었다

면 질투수준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지만, 부족했다면 질투수준을 증가시키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상호적인 우정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기능 못지않게 부정적인 기능인 경쟁과 갈등정도에 따라서도 질투수준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추후에는 양적인 친구관계를 의미하는 우정관계망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을 의미하는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들이 질투수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힌다면, 질투와 관련된 우정관계를 다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개인변인중 자아존중감과 질투수준을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이 자기보고 질투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자아존중감과 자기보고 질투수준간에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Lucas(200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의 자아존중감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이 3.13으로 보통이상의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연구대상자들의 전체적인 자아존중감이 매우 높아서 집단에 따른 차이가 나지 않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자아존중감과 질투가 부적 상관이 있다는 Walker & Parker(2001)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결과에 대한 추측은 다소 어려움이 있다. 높은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과 타인을 잘 수용하고, 주위 환경이나 사회적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게 만들어(Reasoner, 1982) 스트레스 사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고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으므로, 질투가 유발되는 상황은 자아존중감의 많은 이점들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상황일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추후의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보다 일관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넷째, 상황평가변인과 질투수준을 살펴보면, 남녀 집단 모두에서 정당성은 자기보고 질투수준에 유의미한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의도성은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련의 사건에 대해 의도적인 것이라고 평가할수록 분노의 강도가 더 높다는 Averill (1983)의 연구결과에 의해 지지를 받는다. 그리고 Lazarus & Folkman(1986)은 상황적 평가를 무관한 평가, 긍정적 평가와 스트레스 평가로 구분하였는데, 질투가 유발되는 상황은 스트레스 평가에 해당이 된다. 이러한 스트레스 평가는 다시 상실, 위협, 도전과 관련된 평가로 구분되는데, 질투가 유발되는 상황은 아직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예상되는 친한 친구에 대한 상실의 두려움을 유발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게 되고, 이때의 위협과 도전평가는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고 때때로 연관되거나 별개로 간주될 수도 있다. 질투가 유발되어 위협평가만을 하는 청소년들은 잠재적인 우정관계의 해로움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두려움, 불안, 및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여 상황을 고의적으로 해석하기 쉽고, 결과적으로 보다 강한 질투를 유발하게 만드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반해 도전평가만을 하는 청소년들은 잠재적인 대처능력에 치중한 긍정적인 시각으로 사건을 보기 때문에 상황을 도전적이고 정당한 상황으로 지각하게 하여, 질투의 강도를 낮추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도전적이기보다는 위협적이라고 평가되는 상황도 보다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그 사건을 보도록 하는 인지적인 대처노력을 하거나 상황이 바뀌어 문제가 되는 사람과 상황의 관계를 더 좋게 바꾸어 놓으면 위협적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도전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김정희, 1991), 질투가 유발되었을 때 일차적 평가로 위협적인 상황평가를 하여 질투수

준이 높아진 청소년들도 이후에 이차적 평가인 대처안평가와 재평가과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평가는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추후에는 좀 더 다양한 인지적인 평가과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질투수준과 질투표현을 살펴보면, 남녀 집단 모두에서 자기보고 질투수준은 적응적 질투표현과 부적응적 질투표현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자기보고 질투수준과 부적응적 질투표현에 대해 살펴보면, 정서강도가 클수록 부적응적인 대처에 치중하게 되어 스트레스에서 빨리 벗어나기 힘들다는 Flett, Blankstein, & Obertinsky(1996)의 연구결과, 매우 높은 질투성향을 가진 여성들은 낮은 수준의 여성들보다 부적응적인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Roth(200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리고 정서강도에 대한 종단연구(Larsen & Diener, 1987)에서는 정서강도가 시간적으로 안정된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정서강도를 정서경험과 관련된 안정된 개인차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질투수준이 질투의 강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볼 때, 질투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은 낮은 청소년들보다 이후에도 안정된 개인차로써 강한 질투수준을 지속적으로 나타낼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자기보고 질투수준과 적응적 질투표현을 살펴보면, 많은 상황에서 문제집중적 대처와 정서집중적 대처는 분명히 다르게 구분되지만 대처과정에서 이 둘이 서로 촉진할 수도 있고 방해할 수도 있다는 Lazarus & Folkman (1986)의 견해에서 볼 때, 질투가 유발되었을 때도 부적응적인 질투표현뿐 아니라 적응적인 표현도 함께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만으로 적응적 질투표현이 항상 성공적인 질투표현이고, 부적응적 질투표현이 항

상 실패하는 질투표현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추후에는 질투상황에서의 어떠한 표현 및 대처가 성공적인지, 실패인지를 밝히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인 질투표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섯째, 개인변인중 애착과 질투표현을 살펴보면, 남녀 청소년 집단 모두에서 애착은 적응적 질투표현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부적응적 질투표현에는 유의미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애착안정성이 높을수록 적응적인 질투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부적응적인 질투표현은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청소년들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대처 방식을 사용한다는 김영혜(2000)의 연구결과, 안정애착인 청소년들은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려는 문제중심적 대처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하미진(2000)의 연구결과, 또래애착수준이 낮을수록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구자은(200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리고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또래에 대해 덜 공격적이라는 연구(Renken, Egeland, Marvinnery, Mangelsdorf, & Sroufe, 1989)도 이를 지지한다. 이처럼 애착안정성은 또래관계에서 보다 진보적이고 긍정적인 대처 기술을 유발시키고 역경과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데 충분한 준비를 갖추게 함으로써, 스트레스에 적응적으로 반응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Carver, Scheier, & Weintraub, 1989). 또한 괴로움을 인정하고 그것을 감소시키기 위한 건설적인 행동을 수행함으로써 심리적 괴로움을 처리하도록 하기 때문에(Kobak & Sceery, 1988), 본 연구는 애착안정성이 질투가 유발될 때 보다 적응적이고 건강한 질투표현을 이끌 뿐 아니라 부적응적인 질투표현을 줄이는데 긍정적

인 기능을 하고 있음을 밝혀, 안정된 애착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개인변인중 상호적 우정관계망과 자아존중감이 적응적 질투표현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우선 상호적인 우정관계망과 적응적 질투표현에 대한 연구결과는 친구간에 발생하는 갈등상황에서 협상전략과 같은 적응적인 전략들을 선호하고, 친구가 아닌 또래와의 갈등에서는 자기주장을 하거나 공격하는 등 부적응적인 전략을 선호한다는 Laursen (199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질투표현척도와 상호적 우정관계망 크기로 설명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질투표현척도는 친한 친구에게 사용하는 적응적 질투표현, 친한 친구가 아닌 제삼자에게 사용하는 부적응적 질투표현의 내용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친한 친구와 제삼자를 모두 포함하여 적응적 질투표현을 많이 하는지, 부적응적 질투표현을 많이 하는지를 묻는 내용이기 때문에 친한 친구간에 갈등해결전략으로 적응적 전략을 선호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는 다른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질투가 유발되는 상황은 친한 친구와의 갈등상황도 되지만 제삼자와의 갈등상황으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후에는 적응적 질투표현 중에서 친한 친구에게 하는 적응적 질투표현과 제삼자에게 하는 적응적 질투표현을 구분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상호적인 우정관계망은 단순한 친구의 크기인 양적인 의미의 우정관계망인 일방적 우정관계망과는 달리 우정관계의 질적인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상호적인 우정관계망을 측정하기 위해서 친한 친구로 지명할 수 있는 친구를 3명으로 한정하였고, 친구간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같은

반에 있는 친구로만 측정하였다. 이는 청소년기가 되면 비교적 소수의 친구와 깊이있는 관계를 맺기 때문에 3명이라는 숫자가 적은 것은 아니지만, 청소년기가 되면서 우정관계가 보다 안정적으로 지속된다는 점에서 볼 때 같은 반이 아닌 다른 반, 다른 학교에 친한 친구가 있는 학생들도 포함되었을 것이고, 이러한 학생들의 상호적인 우정관계망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밖에 없어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추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호적인 우정관계망의 범위를 학교안팎 모두 포함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자아존중감과 적응적 질투표현을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이 적응적 질투표현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질투가 유발될 때 질투의 강도를 낮추는 예방책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질투가 유발된 이후의 대처과정인 질투표현에 까지도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나타낸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이 부족하여, 연구결과에 대한 정확한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자아존중감 수준이 낮거나 높은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건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에서는 차이가 나지 않지만 부정적인 사건에 대한 반응에서만 차이가 난다는 Brown & Mankowski(1993)의 견해를 볼 때, 자아존중감은 질투표현의 부정적인 측면인 부적응적 질투표현과 관련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추후에는 자아존중감과 질투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일관된 연구결과를 도출해 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흔히 질투는 불쾌라는 정서에서 파생된 이차적 정서로서 부정적인 정서의 범주에 포함시키므로, 질투의 강도가 높으면 부정적인 질투표현을 더 많이 할 것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서처럼,

질투의 강도인 질투수준은 부적응적인 질투표현 뿐 아니라 적응적인 질투표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질투가 유발된 상황에서 어떠한 질투표현을 선택하느냐는 즉각적인 인지적 평가뿐 아니라 개인변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에 대한 적합도가 다소 낮아 연구결과에 대한 명확한 해석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추후에는 보다 적절한 모형을 찾아내기 위한 다양한 질투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일관된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스트레스 상황의 효율적인 대처란 문제의 처리와 정서의 통제라는 두 가지 대처기능을 완성하는가의 여부에 따르기 때문에(Lazarus & Folkman, 1984), 극도의 정서를 대가로 치르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효과적인 대처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효율적인 대처는 부정적인 감정의 관리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질투가 유발된 상황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서는 인지적 문제해결, 의사결정, 정보수집 등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방법을 선택함과 동시에 질투감정 자체를 변화시키거나 관리하려는 노력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인변인중 애착이 질투의 강도 및 표현 과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예방적인 조치나 개입방법으로써 애착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마련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구자은(2002). 자아탄력성, 긍정적 정서 및 사회적 지지와 청소년의 가정생활적응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교현(2004). 남자의 질투와 여자의 질투 : 연인관계

- 에서의 질투의 성차, **한국심리학회지**, 9(4), 771-792.
- 김영혜(2000). 청소년 부모-자녀간의 애착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심리적 안녕감과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지현(2002). 부모와의 애착안정성 및 청소년의 공감 능력과 친구간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희 역(1991). **스트레스와 평가 그리고 대처**, 서울 : 대광문화사.
- 배재현 · 최보가(2006). 남자 청소년의 우정관계에서 발생하는 질투정서와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 및 공격성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4(6), 87-102.
- 서승정(1995). 타인과의 비교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질투감정과 자아존중감간의 관련성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재은(2000). 초기 청소년의 우정관계와 또래공격성 및 또래에 의한 괴롭힘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1), 154-165.
- 심승원(2000).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 및 공격성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손미리(1996). 청소년이 지각한 아버지의 역할수행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순목(1990). **공변량구조분석**. 성화사.
- 이희경(1989). 역할놀이 집단상담을 통한 대인간 갈등 해결방식의 변화.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현주(1990).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언어적 통제유형과 아동의 자존감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현미(1999). 아동의 외로움과 형제 및 친구관계의 질적 특성의 관계,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옥 정(1998). 청소년기 애착안정성과 우울성향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휘숙(1997). 청소년기의 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자기 효능감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4, 88-106.
- 정이경(2002). 자기존중감 성취가능성에 관한 연구 : 질투 감정 극복을 통한 자기존중감 성취에 관해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희숙(1994). **아동발달 심리**, 서울 : 학지사.
- 채유경(2001). 청소년 분노표현방식의 모델 및 조절효과 검증,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윤미(2005). 아동과 가족, 상황특성이 형제간의 질투정서와 비조절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하미진(2000). 중학생의 애착과 자아존중감이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4.
- Averill, J. P. (1983). Studies on anger and aggression : Implications for theories of emotion. *American Psychologist*, November, 1145-1160.
- Berndt, T. J. (1982). The features and effect of friendship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53, 1447-1460.
- Biggs, B. K., & Parker, J. G. (2001, April). Adolescent's jealousy and possessiveness of friends : Social, behavioral, and personal correlates. post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Minneapolis, MN.
- Blyth, D. A., Simons, R. G., & C-Ford, S. (1983). The adjustment of early adolescence to school transition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3, 105-120.
- Bretherton, J. (1985). Attachment theory : Retrospect and prospect.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 3-35.
- Bringle, r. G., & Buunk, B. (1985). Jealousy and social behavior : A review of person, relationship and situational determinants. In P. Shaver(Ed.),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 241-264.
- Brown, J. D., & Mankowski, T. A. (1993). Self-esteem,

- mood, and self-evaluation : Changes in mood and the way you see you.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421-430.
- Buhrmester, D., & Carbery, J. (1992, March). Daily patterns of self-disclosure and adolescent adjustment.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on adolescence, Washington, D. C.
- Buunk, B. (1980). Attributions and jealousy.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22nd International Congress of Psychology, Leipzig.
- Calkins, S. D. (1994). Origins and outcomes of individual difference in emotion regulation. In Fox, N(Eds.),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 Biological and Behavioral Considerations*(p.53-72).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 2-3.
- Carver, C. S., Scheier, M. F., & Weintraub, J. K. (1989). Assessing coping strategies : a theoretically based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267-283.
- Carson, C. L., & Cupach, W. R. (2000). Fueling the flames of the green-eyed monster : The role of ruminative thought in reaction to romantic jealousy. *Western Journal of Communication*, 64, 308-329.
- Clark, M. I., & Ayers, M. (1993). Friendship Expectations Friendship Evaluations : Reciprocity and sex effect. *Youth and Society*, 24, 299-313.
- Cochran, M., & Brassard, J. (1979).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 social networks. *Child Development*, 50, 601-616.
- Crick, N. R., & Grotpeter, J. K. (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 710-722.
- Epps, J. & Kendall, P. C. (1995). Hostile attributional bias in adults. *Cognitive Theory and Research*, 19, 159-178.
- Fagot, B. I. (1977). Consequences of moderate cross-gender behavior in preschool children, *Child Development*, 48, 902-907.
- Ferguson, T. J., & Rule, B. G. (1982). Influence of inferential set, outcome intent, and outcome severity on children's moral judgm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18(6), 843-851.
- Flett, G. L., Blankstein, K. R., & Obertinsky, M. (1996). Affect intensity, coping style, mood regulation expectancies, and depressive symptom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20, 221-228.
- Fujita, F., Diener, E., & Sanvik, E. (1991). Gender differences in negative affect and well-being : the case for emotional intens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3), 427-434.
- Graham, S., Hudley, C., & Willams, E. (1992). Attributional and emotional determinants of aggression among African-American and Latino young adolesc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28, 731-740.
- Hansen, G. L. (1991). Jealousy : Its conceptualization, measurement and integration within family stress theory. In P. Salovey(Eds.), *The psychology of jealousy and envy*(pp.252-272). New York : Guilford Press.
- Harris, P. L., & Olthof, T. (1982). The child's concept of emotion. In G. Buterworth & P. Light(Eds.), *Social cognition*, 188-209. Sussex : Harvester Press.
- Hartup, W. W., French, D. C., Laursen, B., Johnston, M. K., & Ogawa, J. R. (1993). Conflicts and friendship relation in middle childhood : Behavior in a closed-field situation. *Child Development*, 64, 445-454.
- Hazan, C., & Shaver, P. R. (1993). Attachment as an organizational framework for research on close relationships. *Psychology Inquiry*.
- Kaplan, H. B. (1983). *Psychosocial Stress : Trends in Theory and Research* : New York, Academic.
- Kanner, A. D., Coyne, J. C., Schaefer, C., & Lazarus, R. S. (1981). Comparisons of two modes of stress measurement : Daily hassles and uplifts versus

- major life events.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4, 1-39.
- Kobak, R. R., & Sceery, A. (1988). Attachment in late adolescence : Working models, affect regulation, and representations of self and others. *Child Development*, 59, 135-146.
- Kopper, B. A., & Epperson, D. L. (1996). The experience and expression of anger : Relationships with gender, gender role socialization, depression, and mental health func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 158-165.
- Laireiter, A., & Lettner, K. (1993). Belastende Aspekte Sozialer Netzwerke und sozialer Unterstuzung. Bern-Huber.
- Lansford, J., & Parker, J. G. (1999). Children's interactions on friendship triads : Effects of gender and relationship intransitivity. *Developmental Psychology*, 35, 80-93.
- Larsen, R. J., & Diener, E. (1987). Affect intensity as an individual difference characteristic : A review.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1, 1-39.
- Laursen, B. (1993). Conflict management among close peers. In W. Damon(Scrics, Ed.) & B. Laursen (Ed.)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60. *Close Friendship of Adolescence*, 39-54. San-Francisco : Jossey Bass.
- Laursen, B., & Collins, W. A. (1994). Interpersonal conflict during adolescence. *Psychological Bulletin*, 115, 197-209.
- Lavallee, K. L., & Parker, J. G. (2003). Friendship jealousy and social-emotional adjustment : The Role of social beliefs and cognitive processes.
- Lavallee, K. L., Parker, J. G., & Walker, A. R. (2002). Friendship jealousy, relational aggression and social adjustment : Gender difference and pattern of change and stability over time, paper presented at international society for research on aggression. XV World Meeting Montreal Canada.
- Lavallee, K. L. (2005). Beliefs about the controllability of social characteristics and children's responses to outsiders' interference in friendship.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Lazarus, R. S. (1991). Emotions and adaptation.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Coping and adaptation. In W. D. Gentry(Ed.), *The handbook of behavioral medicine*. New York : Guilford, 282-325.
- Lazarus, R. S., & Folkman, S. (1986). Stress process and depressive symptomatolog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5, 107-113.
- Lever, J. (1976). Sex differences in the games people play. *Social Problem*, 23, 478-487.
- Louden, D. M. (1981). A comparative study of self-concepts among minority and Majority group in adolescents England and Multi-racial schools. *Ethic and Racial Studies*, 4, 153-174.
- Lucas, A. A. (2004).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ttributions and communication in response to jealousy in same-sex female friendships. Michigan State University.
- Ludlow, L., Hartmann, D. P., George, T. P., Maianu, C., Abbott, C., & Ward-Anderson, D. (1999). Reasons for friendship loss as a function of popularity status. Post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Albuquerque, NM.
- Lyddon, W. J., Bredford, E., & Nelson, P. J. (1993). Assessing adolescent and adult attachment : A review of current self-report measure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1, 390-395.
- Maccoby, E. E. (1990), Gender and relationships : A developmental perspective *American Psychologist*, 45, 513-520.
- Maccoby, E. E. (1996). Peer conflict and intrafamily conflict : Are there conceptual bridges?, *Merrill-Palmer Quarterly*, 42, 165-176.
- Mathes, E. W., Adams, H. E., & Davies, R. M. (1985).

- Jealousy : Loss of relationship rewards, loss of self-esteem, depression, anxiety and ang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 1552-1561.
- Murphy, S. M., Vallacher, R. R., Shackelford, T. K., Bjorklund, D. F., & Younger, J. L. (2006). Relationship experience predictor of romantic jealous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40(4), 761-769.
- Novaco, R. W. (1994). Anger as a risk factor for violence among the mentally disordered. In K. Monahan & H. J. Steadman(Eds.). *Violence and mental disorder*.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arker, J. G., & Asher, S. R. (1993). Friendship and friendship quality in middle childhood : Links with peer acceptance and feelings of loneliness and social dissatisfa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9, 611-621.
- Parker, J. G., & Low, C. (1999). Defining and assessing children's jealousy over friends :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the Friendship Jealousy Questionnaire.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Albuquerque, NM.
- Parker, J. G., & Walker, A. R. (2003). Encouraging Adolescent Social Competence : A Practicum. In J. Cohen and L. Yapa(eds.), *A Blueprint for Public Scholarship at Penn State*. University Park, Pa. : Penn State.
- Parker, J. G., Walker, A. R., & Gamm, B. K. B. (2002). Worlds within worlds : the friendship network context of jealousy and relational aggression.
- Parker, J. G., Walker, A. W., Low, C., & Gamm, B. K. (2005). Friendship Jealousy in Young Adolescents : Individual difference and Links to Self-Esteem, Aggression, and Social Adjust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41(1), 235-250.
- Paterson, J. E., Field, J., & Pryor, J. (1994). Adolescent's perceptions of their attachment relationships with their mothers, fathers, friend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3(5), 579-600.
- Pfeiffer, S. M., & Wong, P. T. P. (1989). Multidimensional jealousy.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6, 181-196.
- Ptacek J. T., Smith, R. E., & Zanas, J. (1992). Gender, appraisal and coping :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60, 771-769.
- Quigley, B. M., & Tedeschi, J. T. (1996). Mediating effects of blame attributions on feeling of ange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2, 1280-1288.
- Raja, S. N., McGee, R., & Stanton, W. R. (1992). Perceived attachments to parent and peer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1(4), 56-68.
- Rawlins, W. K. (1992). *Friendship matters*. New York : Aldine de Gruyter.
- Reasoner, R. (1982). *Building Self-Esteem : A Comprehensive Program*, Consulting Psychologist Press. Palo Alto, CA.
- Renken, B., Egeland, B., Marvinney, D., Mangelsdorf, S., & Sroufe, L. A. (1989). Early childhood antecedents of aggression and passive withdrawal in early elementary school. *J Pers*, 57, 257-281.
- Richard, B. A., & Dodge, K. A. (1982). Social maladjustment and problem solving in school-aged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0, 226-233.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ce self-image*. Princeton.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th, M. A. (2002). Navigating the minefields of social triangles : Adolescents 'reaction th their friends' friends and romantic partners.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Roth, M. A., & Parker, J. G. (2001). Affective and behavioral response to friends who neglect their friends for dating partners : Influences of gender, jealousy, and perspective. *Journal of Adolescence*,

- 24(3), 281-296.
- Rubin, K. H. (1982). Social and social-cognition development characteristics of young isolate, normal, and sociable children. In K. H. Rubin, & H. S. Ross(Eds.), *Peer relationships and social skills in childhood*, 353-374. New York : Springer-Verlag.
- Salovey, P., & Rodin, J. (1989). Envy and jealousy in close relationships. In C. Hendrick(Eds.), *Close relationships*(pp.221-246). Newbury Park, CA : Sage.
- Shackelford, T. K., Buss, D. M., & Bennett, K. (2002). Forgiveness or Breakup : Sex difference in responses to a partner's infidelity. *Cognition and Emotion*, 16, 299-307.
- Simmons, R. (2002). *Odd girl out : The hidden culture of aggression on girls*. Harcourt : New York.
- Volling, B. L., McElwain, N. L., & Miler, A. L. (2002). Emotion regulation in context : The jealousy complex between young sibling and its relations with child and family characteristics. *Child Development*, 73, 581-600.
- Walker, A. R., & Parker, J. G. (2001). Does jealousy matter? : Interpersonal and intrapersonal correlates of self- and peer-reported friendship jealousy.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March, Minneapolis, MN.
- Walter, J. L., & LaFreniere, P, J. (2000). The nationalistic study of affective expression, social competence, and sociometric status, *Early Education & Development*, 11, 109-122.
- White, G. L. (1999). Jealousy and problems of commitment. In J. M. Adams & W. H. Jones(Eds.), *Handbook of interpersonal commitment and relationship stability*, 471-480. New York : Kluwer Academic/Plenum.
- Zeman, J., & Garber, J. (1996). Display rules for anger, sadness, and pain : it depend on who is watching. *Child Development*, 67, 957-973.

2007년 2월 28일 투고 : 2007년 5월 1일 채택